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Economic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Elderly Household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 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박 해 성**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Sun-Ja, Kye

Dep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Hye-Sung,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stresses and coping strategies for elderly households depending on the variables of background, and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these factors.

Elderly households which satisfied the following criteria were recruited for participation: (a) reside in Seoul, or in the metropolitan area (b) live apart from their adult children after retirement and (c) ages over sixty. From September 20th, 2006 to November 30th, 2006, 296 were used for this research.

First, the mean score of the economic stress level of elderly households was 2.87 out of 5, and the stress levels of income expenditure and asset debt were intermediate. The mean score of the economic coping strategy was 3.17 out of 5.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stress, elderly households utilized reducing their expenditure, financial management, and re-employment. The level of elderly households' life satisfaction was 3.29 of 5 and the depression was 3.17 of 5.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박해성 (phsung@sm.ac.kr)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economic variables and the degree of the economic stress after the review of the variables of the elderly households and the coping strategy due to economic stress. The result shows that the households which had a low economic status and high economic stress from the objective viewpoint participated in more economic activities. Their reactions were to decrease the overall expenditure through reducing the expenditure rather than to manage the asset effectively through re-employment or to inaugurating a business.

Third, I analyzed situational factors, economic stress, and economic coping strategy in order to compare relative contributors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using regression. At the third phase in the process of analysis, the socio-psychological factors appeared to be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Regarding the stress caused by income expenditure increased, when elderly households were more concerned about reducing expenditure and re-employment, their feelings of depression increased.

Key Words : 경제적 스트레스(economic stress), 대처행동(coping strategy),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노인단독가계의 비율은 1980년 19.5%, 1990년 31.8%, 2000년 50.9%, 2005년 56.9%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상태는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인데, 2006년 노인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비노인가구 소득 3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실제로 현재의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48.6%로 독일 8.1%, 미국 29.3%, 대만 26.5%, 일본 19.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01).

한편 최근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생활전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박경란·제미경·오찬옥, 1995;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 1995; 남정림, 1996; 이영자, 1999;

채옥희, 2000; 이선미·김경신, 2002; 이신숙, 2002), 단독가계 노인들은 현실적으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해결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한은진 외, 1995), 심리적 고독감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그리고 가사일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김자혜, 1992, 고영수, 1993; 송점호, 1994). 더욱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20여년 이상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 경제적 안정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감소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물가상승, 생활표준 향상 등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가계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의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노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인지하였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는가, 즉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심리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노인가계에서 경험하고 인지한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이 바로 가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노인가계 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원 및 대처행동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제적 대처행동을 취한다면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복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노인의 직접적인 스트레스원에 따른 결과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두루 검토한 선행연구(윤현희, 1994; 김재경, 1997)는 몇몇 편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결과들(이운정, 1994; 윤종희·이혜경, 1997; 백경숙·권용신, 2005)에서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가계의 경제적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1995년 이후에 들어와서 농가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손상희, 1995)를 필두로 하여 1997년 IMF 경제위기상황에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경옥, 2000; 유을용, 2002). 이제 노인단독가계는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족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노

인단독가계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유형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더욱이 노인단독가계는 노령화와 경제자원의 빈곤이라는 이중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한 집단으로 이들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수준과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단독가계 노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김경자, 1991; 이종혜, 1993; 황덕순, 1995; 박선옥, 1996; 최자령·임정빈, 1996; 광인숙·송요숙·김경애, 1999; 이정우·정진희, 1999; 윤성인·임정빈, 1999; 정혜경, 1999; 이경옥, 2000; 이미숙·고선주·권희경, 2000; 유을용, 2002; Conger et al., 1990; Lorenz et al., 1991; Varcoe, 1990), 이외에도 농촌가계(노자경, 1996)와 기혼남성(박유신, 1999)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가 몇 편 있다. 한편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가계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분석하여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심영, 2000; 양세정, 2000; 김영숙, 2002; 여윤경, 2003; 이선형·김근홍, 2003; 김민정, 2005),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주로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윤현희, 1994; 김재경, 1997; 이영자, 1999; Krause와 Tran, 1989; Krause, 1991; Shirley, 2004)에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별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한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 노년기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계로 모든 가족생활주기단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간총소득은 832만 9천 원(월평균 69만 4천원)이며 이중 근로소득은 371만 7천원(월평균 30만 9천원)으로 가장의 퇴직으로 인해 주요 소득원천이었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실질적인 소득원이 사회보험(97만 4천원)이나 이전소득(185만 9천원)은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액수도 매우 증가하였다. 특히 이전소득은 정부보조금이 29만 4천원인데 반해 자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은 151만 1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인가계의 재무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30.6%(김연정, 1998), 56.2%(김순미, 1998)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초과지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6%에 해당하는 노인가계가 총부채대비 순자산을 의미하는 부채부담지표가 준거기준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미, 1998), 이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로 파산상태에 있는 가계라고 볼 수 있어 노인가계의 경제적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와 같이 노인가계는 절대액을 통한 재무구조와 재무비율을 통한 분석에서 객관적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48.6%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어 객관적 재무상태와 주관적 인지가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들 결과는 노인가계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노인 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서현미, 1997; 이지은, 1998; Krause와 Tran, 1989; Krause, 1991; Shirley, 2004)에서 노인들은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부터 88세까지의 흑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Shirley(2004)의 연구에서 노인은 신체적 한계, 가정에서의 고립, 배우자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은퇴, 경제적 불안정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이영자, 1999; 임선영, 2000)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은 건강문제, 가족관계, 의사소통문제, 주거환경 등에 있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낮았다. 더욱이 이들의 가계소득은 대체로 중·하류수준이었지만, 주관적 생활수준은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갈 정도로 어렵더라도 그 정도에 만족하는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실제 노인이 인지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낮게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해서 노인가계의 경제적 측면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평균 78.6세로(남성 75세, 여성 82세, 통계청, 2006),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20~30여년의 노후생활설계에 있어 경제적 측면은 노인의 삶 전반에 걸쳐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제적 요구나 경제자원의 변화로 인한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자산에 대해 노인이 인지하는 갈등, 긴장 혹은 부담감 정도로 정의하고, 단독가계 노인이 인지하는 소득·지출 스트레스와 자산·부채 스트레스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끊임없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적 자극을 전혀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외적 자극의 유무가 아니라 외적 자극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홍유미, 2001; 홍민주, 2002)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원래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였으나 각 관련 학문 분야별로 스트레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양식을 분류 제시하고 있다. 최근 가정학 분야에서도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스트레스 대상으로 규정짓고 그에 대한 대처행동을 연구(정선희, 1987; 조희선, 1991; 김혜정, 1995; 손상희, 1995; 황덕순, 1995; 노자경, 1996; 이경옥, 2000; 유을용, 2002)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연구(황덕순, 1995; 이경옥, 2000; 유을용, 2002)는 은퇴 전 가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IMF 이후 우리나라의 고물가, 고실업이라는 경제상황은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계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다양한 요구와 소득 및 자산수준이 변화하며 실직, 사고, 질병, 사망 등 가정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 주부들은 가계의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조혜정, 1994) 적절한 대처행동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그 결과 경제생활만족도도 크게 향상되는 것(유을용, 2002)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연구들은 대다수가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하위범주로 포함하여 살펴보거나(이지영, 2002),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가계의 대처행동을 일부 다루고 있다(이경옥, 2000). 이에 비해 단독가계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분석한 연구(이선형, 1995; 박충선, 1996)는 최근에 와서 몇 편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선형(1995)의 연구에서 단독가계 노인의 가계재정관리 수준은 중간이하로 계획보다 실행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연령이 낮고 중년기 재정관리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수행하였다. 단독가계 노인의 총자산, 월평균 총수입, 월평균 생활비, 수입원 천 등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정관리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가계의 경제자원 구조가 양호할수록 재정관리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선(1996)의 연구에서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전략은 개인자원 활용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가계를 형성하는 노인들 중에 고학력 층이 많고 이들은 은퇴 전 저축, 연금, 퇴직금 등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에 유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자원을 활용하는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생애를 통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동안 축적된 재산소득을 노

후에 활용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제도적인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옥(2000)의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최고령층 주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대처행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즉 가계의 경제위기에 대해 소득확장노력이나 정보탐색과 같은 적극적 대처행동 뿐만 아니라 욕구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소극적 대처행동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대처행동을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노인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지출축소행동, 재무관리행동, 취업·노동력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3. 노인가계의 심리적 복지감

노인에게 심리적 복지감은 정신적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이선미, 2001; 김태현·한은주, 2004; 백경숙·권용신, 2005; 이선정, 2005).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강윤주, 1997; 김경애, 1998; 윤에스더, 1999; 이선미·김경신, 2002; Adelman, 1994), 우울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전길양 등, 1998; 이영자, 1999; 이선미, 2001; 백경숙·권용신, 2005; Adelman, 1994).

그러나 면접조사방법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분석한 김태현 등(1998)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단독가계 노인의 경우 전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지훈, 1997; 이영자, 1999; 이선미, 2001; 김태현·한은주, 2004; 윤순덕, 2004). 또한 배우자를 상실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고독감이 높고,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박봉길, 2000; 조경옥, 2002; 최용민·이상주, 200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현과 한은주(2004)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건강·자녀문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원경험이 있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수입, 주거형태, 생활수준 등의 경제상태는 단독가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송인옥, 1999; 안경숙, 2005),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Kalish, 1975). 특히 노인의 경제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조건들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특히 사별 그 자체의 영향보다 사별로 인한 경제상태의 악화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참여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보고, 생활의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만족상태인 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의 정도인 우울감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대처행동,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라 경제적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단독가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배경변인, 경제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유의표집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 또는 독신으로 생활하는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계를 선정하였다.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단독가계 남녀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같은 해 9월 2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2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기재가 불충분한 30부를 제외한 총 296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계수(Cronbach' α), Pearson's 적률상관계수,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1> 사회인구학적, 객관적 경제변인의 일반적 수준

(N=296)

변인		구분	빈도	%
사회인구학적	성별	남자	135	45.6
		여자	161	54.4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96	32.4
		65세 이상~70세 미만	93	31.4
70세 이상~75세 미만		67	22.6	
75세 이상		40	13.5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75	25.3	
	중졸	49	16.6	
	고졸	108	36.5	
	대졸 이상	64	21.6	
변인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37	12.5
		보통이다	85	28.7
		건강하다	174	58.8
배우자 유무	있다	207	69.9	
	없다	89	30.1	
객관적 경제변인	총자산	1억원 미만	59	19.9
		1억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	71	24.0
		2억5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61	20.6
		5억원 이상~10억 미만	50	16.9
		10억원 이상	55	18.6
부채 유무	있다	73	24.7	
	없다	223	75.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6	32.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7	26.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9	19.9	
	300만원 이상	64	21.6	
소득원천	근로(부업)소득	75	25.3	
	공적연금소득	50	16.9	
	재산소득	91	30.7	
	사적이전소득	63	21.3	
	공적이전소득	17	5.7	
주택 소유 유무	있다	240	81.1	
	없다	56	18.9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노인 45.6%, 여자노인 54.4%로 여자노인이 약간 많고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고, 절반이상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부부가계였으며 그외 30.1%가 여성독신가계 또는 남성독신가계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5억 120만원이었고, 평균부채는 6천 10만원으로 평균 자산의 1/8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백 90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월소득 평균이 116만원이라는 통계청(2006) 조사에 비하면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원천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벌거나 과거에 벌어 놓은 재산 등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공적소득원은 전체의 22.6%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적소득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 유무는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81.1%, 소유하지 못한 가계가 18.9%로 대다수의 가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보면, 내외통제성은 3.69점으로 대체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대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성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은퇴전 노후경제 준비수준은 2.77점(100점 만점 환산시 55.4점)이었으며,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은 2.77점(100점 만점 환산시 55.4점), 가족원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각각 3.60점(100점 만점 환산시 72점)과 3.01점(100점 만점 환산시 60.2점)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지지를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친척/친구/이웃으로부터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신체적 수발 등의 도구적 지지보다 (2.61점)는 어려울 때 위로와 관심을 받는다는

등의 정서적 지지(3.40점)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변인		평균	표준편차
내외통제성		3.69	.60
노후경제 준비수준		2.77	1.07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		2.77	.81
가족원의 지지		3.60	.94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40	.99
	도구적 지지	2.61	.98
	전체	3.01	.82

2.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

노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2.87점(100점 만점 환산시 57.8점)이었고, 노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중 소득·지출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3.08점, 자산·부채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2.42점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 스트레스보다 소득·지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지연경·조병은, 1991; 김시월, 1999; 이정우·정진희, 1999; 유을용, 2002)에서 주부들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 중 자산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우 자녀교육 및 결혼 등의 과업을 대부분 수행하였고,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총자산이 평균 5억 120만원으로 본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확보된 경우가 많아 자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도 노년기가계의 재정불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교육기가 지나면 객관적으로 재정상황

이 나이지므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진행될 수록 재정불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성격상 부채가 없는 가계가 3/4 이상(75.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의 경제적 대처행동의 전체 평균은 3.17점(100점 만점 환산시 63.4점)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출축소행동 3.83점(100점 만점 환산시 76.6점), 재무관리행동 3.06점(100점 만점 환산시 61.2점), 취업·노동력 활용 1.38점(100점 만점 환산시 27.6점) 순으로 나타나 취업을 통해 소득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소극적 대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60대 이상 최고령층 주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대처행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이경옥(2000)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대처행동을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노자경, 1995; 황덕순, 1995; 유을용, 2002)에서 지출감소, 구매관리 행동, 규범적 절약행동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비교적 다른 투자 없이도 가족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대처행동들이기 때문으로, 소극적 대처경향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0

<표 3>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지출 스트레스	3.08	1.02
	자산·부채 스트레스	2.42	1.05
	전체	2.87	.95
경제적 대처행동	지출축소행동	3.83	.79
	재무관리행동	3.06	.92
	취업·노동력 활용	1.38	.68
	전체	3.17	.54
심리적 복지감	생활만족도	3.30	.75
	우울감	3.17	.90

점(100점 만점 환산시 66점), 우울감은 3.17점(100점 만점 환산시 6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상태가 보통정도인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이영자, 1999; 이인정, 1999; 이선미, 2001; 김지연, 2002)들과 일치하고 있다.

3.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

조사대상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은 <표 4>와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중·하 집단에 비해 대처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적 불안이 큰 가계일수록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황덕순(1995), 강이주·성영애(1999), 유을용(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모든 영역의 경제적 대처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소극적 대처행동이라 볼 수 있는 지출축소행동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지출 스트레스가 높은 때 주부들은 지불연기 행동, 구매관리 행동, 차용행동 등 가계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일시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강이주·성영애, 1999; 유을용, 2002; Elder, 1992)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은퇴로 인한 소득단절과 노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노후생활자금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노인이 소득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경우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처행동은 가계의 소비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지출축소는 일시적으로 소득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

〈표 4〉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

경제적 대처행동		지출축소행동			재무관리행동			취업·노동력활용			전체		
		평균	Duncan	F값	평균	Duncan	F값	평균	Duncan	F값	평균	Duncan	F값
소득·지출 스트레스	높은 집단	4.27	C	36.36***	2.84	A	4.14*	2.59		2.06	3.32	B	10.23***
	중간 집단	3.84	B		3.11	B		2.49			B		
	낮은 집단	3.39	A		3.21	B		2.68			A		
자산·부채 스트레스	높은 집단	4.17	C	16.66***	2.97	1.65	2.49	A	8.39***	3.32	B	6.14**	
	중간 집단	3.56	B		3.19		A	3.09		A			
	낮은 집단	3.78	A		3.01		B	3.08		A			
전체	높은 집단	4.26	C	31.90***	2.88	A	2.54	AB	2.78*	3.33	C	10.23***	
	중간 집단	3.80	B		3.10	AB	2.51	A		3.17	B		
	낮은 집단	3.43	A		3.20	B	2.72	B		2.98	A		

*p<.05 **p<.01 ***p<.001

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처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소비규모의 축소는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을 필수재에 집중시키고 이는 곧 노인의 경제적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재무관리행동과 취업·노동력활용과 같은 적극적 대처행동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불안이 낮은 가계는 의도적 관리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한다는 황덕순(199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소비지출 감소행동과 같은 소극적 대처행동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후 즉각적이고 임시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지만, 재무관리행동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계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관리를 통해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대처행동이다. 즉 소득·지출 스트레스가 중·하인 집단은 예방적 성격의 재무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정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 하는 단독가계 노인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년기 때부터의 보다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노동력 활용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중간인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계가 소득원 확대를 위해 노동력 활용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손상희, 1995; 노자경, 1996; Voydanoff, 1989)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자산·부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경제적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집단으로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위한 중·장년기 때부터의 자산관리행동 및 교육수준 등이 뒷받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이 취업·노동력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 파악된다.

4. 노인가계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1) 노인가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단독가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 경제적

〈표 5〉 노인가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별	-.11	-.07	.05	-.04	.11	.07	.11	.07	.12	.08
	연령	.02	.08	.02	.08	.00	.06	.00	.06	.00	.06
	교육수준	.00	.03	.00	-.00	-.00	-.05	-.00	-.04	-.00	-.05
	건강상태	.39	.42***	.37	.40***	.24	.26***	.24	.25***	.24	.26***
	배우자유무	.34	.21***	.29	.18***	.19	.11***	.20	.12***	.20	.12**
객관적 경제 변인	총자산			.00	.13*	.00	.09	.00	.09	.00	.09
	부채유무			.16	.09	.01	.00	-.02	-.01	-.04	-.02
	월평균소득			.00	.10	.00	.00	-.00	-.01	-.00	-.00
	소득원천			-.23	-.12*	-.07	-.04	-.07	-.04	-.06	-.03
	주택소유유무			.22	.11*	-.04	-.02	-.08	-.04	-.07	-.04
사회 심리적 변인	내외통제성					.26	.21***	.25	.20***	.24	.19***
	노후경제준비수준					-.01	-.01	-.01	-.01	-.02	-.03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					.13	.14**	.11	.12*	.12	.13*
	가족원의 지지					.26	.33***	.25	.31***	.24	.30***
	정서적 지지					.11	.14**	.12	.16**	.11	.15**
도구적 지지					.03	.04	.04	.05	.04	.06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지출 스트레스							-.00	-.00	-.00	-.01
	자산·부채 스트레스							-.07	-.10	-.07	-.10
경제적 대처행동	지출축소행동									.05	.05
	재무관리행동									.02	.02
	취업·노동력 활용									.00	.00
R ²		.26		.32		.60		.60		.61	
F값 및 유의도		20.99***		13.60***		26.32***		23.86***		20.47***	

*p<.05 **p<.01 ***p<.001

- *배우자 유무 : 기준(무) 비교(유)
- *부채유무 : 기준(유) 비교(무)
- *소득원천 : 기준(사적소득원) 비교(공적소득원)
- *주택소유유무 : 기준(무) 비교(유)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은퇴한 단독가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원의 지지($\beta = .30$), 건강상태($\beta = .26$), 내외통제성($\beta = .19$), 사회적 지지($\beta = .15$), 상대적 생활수준 비교감($\beta = .13$), 배우자유무($\beta = .12$)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61%였다. 각 단계별로 설명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사회인

구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은 26%, 2단계 객관적 경제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2%($p < .001$)로 6%($p <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0%($p < .001$)로 28%($p <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4단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의 증가가 없었으며, 마지막 5단계에서 경제적 대처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61%($p<.001$)로 나타났고 1%의 설명력만이 증가하였다. 이상에 의하면 독립변인군 중 사회심리적 변인군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절대적 경제상태보다는 주위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서미경·김정석(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객관적인 경제

자원을 높일 수 없을 경우에는 경제생활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주관적인 자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가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단독가계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객관적 경제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 경제적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표 6〉 노인가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03	-.01	-.06	-.03	-.18	-.09	-.16	-.08	-.16	-.09
	연령	.03	.19***	.03	.19***	.03	.20***	.03	.21***	.03	.22***
	교육수준	-.04	-.21***	-.03	-.17**	-.02	-.13*	-.02	-.13*	-.02	-.14*
	건강상태	-.41	-.36***	-.40	-.36***	-.35	-.31***	-.34	-.31***	-.33	-.29***
	배우자유무	.03	.01	.05	.02	.11	.06	-.13	.06	.11	.06
객관적 경제 변인	총자산			-.00	-.07	-.00	-.01	-.00	-.00	.00	.01
	부채유무			.04	.02	.08	.04	.13	.06	.08	.04
	월평균소득			-.00	-.00	.00	.03	.00	.11	.00	.14
	소득원천			-.03	-.01	-.02	-.01	-.01	-.00	-.00	-.00
	주택소유유무			-.08	-.03	-.00	-.00	.05	.02	.06	.02
사회 심리적 변인	내외통제성					.15	.10	.17	.11*	.16	.11**
	노후경제준비수준					-.12	-.14*	-.13	-.16*	-.22	-.26***
	상대적생활수준비교감					-.04	-.04	.03	.02	.06	.05
	가족원의 지지					-.11	-.12	-.08	-.09	-.09	-.09
	정서적 지지					.01	.01	-.00	-.00	-.01	-.01
경제적 스트레스	소득·지출 스트레스							.18	.20*	.17	.20*
	자산·부채 스트레스							.01	.01	-.02	-.03
경제적 대처행동	지출축소행동									.12	.11*
	재무관리행동									.13	.13
	취업·노동력 활용									.14	.11*
R ² 값		.29		.29		.34		.37		.41	
F값 및 유의도		23.69***		12.09		9.31**		9.19**		9.14***	

* $p<.05$ ** $p<.01$ *** $p<.001$

*배우자 유무 : 기준(무) 비교(유)
 *부채유무 : 기준(유) 비교(무)
 *소득원천 : 기준(사적소득원) 비교(공적소득원)
 *주택소유유무 : 기준(무) 비교(유)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beta=-.29$), 노후경제 준비수준($\beta=-.26$), 연령($\beta=.22$), 소득·지출 스트레스($\beta=.20$), 월평균소득($\beta=.14$), 교육수준($\beta=.14$), 지출축소행동($\beta=.11$), 취업·노동력 활용($\beta=.11$), 내외통제성($\beta=.11$)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간의 전체 설명력은 41%였다. 각 단계별로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29%로 나타났으며, 2단계 객관적 경제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3단계에서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4%($p<.01$)로 2단계에 비해 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4단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37%($p<.0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의 증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 경제적 대처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1%($p<.001$)로 나타났고 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는데, 지출축소행동과 취업·노동력 활용을 많이 수행할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나 혹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취업하는 비율은 낮고 생계를 위한 취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이선형, 1995) 취업이 노인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이나 취업·재취업 활용 등을 할 수 없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건강정도가 나쁜 노인들의 경우 할 수 있는 대처행동이 지출축소행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추론되며 이러한 노인특성으로 인해 지출축소행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본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지출축소행동이나 취업·노동력 활용과 같은 대처행동은 보다 향상된 노후경제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우울감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첫째,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노인이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노인부부가계가 70%, 주택소유가계가 81%, 가계 총자산이 평균 5억 원이상, 월평균소득 190만원으로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중류층 이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대처행동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계의 경우 자녀교육 및 결혼, 노후자금마련 등의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적 대처행동을 강구하지만, 노인가계의 경우 대부분의 과업을 수행한 단계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생 중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퇴 후 20여년의 노후경제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준비, 보험을 포함한 현재의 자산과 부채현황의 정리,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보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준비, 증여와 유산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는 노인 특유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가족원들은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

운 노후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단독가계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대처행동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경제적 대처행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가계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적확대를 위한 재취업·창업 등의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는 소비욕구를 최대한 억제하여 소비지출 규모를 줄이는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은퇴로 인해 소득원을 상실한 노인이 가장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처행동은 소비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계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하며, 실제 노년기의 특성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이 살아온 생활방식의 고수 등의 성향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년기 가계의 자산관리 상담을 위한 자산관리사와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가를 통한 노인가계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노년기 가계재무관리 프로그램, 노후생활을 위한 재테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기업에서는 노후관련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원의 지지는 중요한 변인이었는데,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하더라도 자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가족원의 지지는 성격상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성인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이 감소하고 노인세대 역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지지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주거는 독립되어 있지만 세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정책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대표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전국자료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표본추출시 노인이 많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설문면접을 실시하였고 임의추출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 경제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중류층 이상의 노인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에 대해 노인가계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노인가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빈곤노인가계, 부부단독가계, 여성노인단독가계를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 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2)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 (10), 179-196.
- 3)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태현, 한은주(200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 (3), 81-106
- 5)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 (8), 91-101.
- 6) 노자경(1995).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박선욱(1996). 가계재정관리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백경숙, 권용신(2005).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노인복지연구* 28(여름호), 379-402.
- 9)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10)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 11)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12) 유을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14)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2.
- 15) 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이선형(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18) 이지영(2001).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임정빈, 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 소비지출비교 : 1982-1998.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20)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1) 최자령(1995).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23)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5) Anderson, T., & McCulloch, B.(1993). Conjugal support :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 of Gerontology* 48, S133-S142.
- 26) Calasanti, T.M.(1996).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 An Assessment of the Male Model, *J of Gerontology, B. Psychology. Sci. Soc. Sci.* 51, S18-S29.
- 27) Chipperfield, J.G., & Havens, B.(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J of Gerontology, B. Psychology. Sci. Soc. Sci.* 56, 176-186.

- 28) Godwin, D., & Scanzoni, J.(1989). Couple Concensus During Marital Joint Decision Making : A Context, Process, and Outcome Mode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43-956.
- 29) Gottman, J. M., Krokoff, L. J.(198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View,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30) Hayes, M. 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31)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 343-360.

- 접수 일 : 2008년 4월 14일
- 심사 일 : 2008년 4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1일